美 캘리포니아에 부처님 치아사리 나투다

루 마운틴 사원
한 달간 친견법회 봉행

부처님 진신사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도심 한 가운데서 나투었다.

캘리포니아 지역 매체인 Sgtribune(sgvtribune.com) 지는 "아시아계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가정에 봉안해 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기증 받은 루 마운틴(Lu Mountain) 사원이 4월 3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os Angeles County)의 로즈미드(Rosemead) 지역에 소재한 루 마운틴 사원에서 마련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에는 부처님의 치아사리 1과, 두골사리 2과 등을 비롯해 200여 과가 미국 불자들의 신심을 다잡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진신사리 중 불자들은 물론 지역 언론의 관심을 받은 치아사리와 두골사리는 최근 루 마운틴 사원에 기증됐고, 루 마운틴 사원 측은 이를 널리 알리고자 이번 친견법회를 마련했다.

"평생 한 번 친견하기도 쉽지 않은 부처님 치아사리와 두골사리를 봉안하게 된 것은 루 마운틴 사원의 복"이라고 전재한 용후아(Yonghua) 스님(루 마운틴 사원 주지)은 "대만계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계 스리랑카계 불자들이 진신사리를 기증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캘리포니아 불교계가 출신 지역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불교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맞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견 법회 첫 날인 3일에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보디 라이트(Bodhi Light International)'의 회원 불자를 비롯해 각 아시아계 불자 500여 명이 참배하고, 씨안찌에(XianJie) 스님의 해설에 귀를 기울였다.


루 마운틴 사원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씨안찌에(XianJie) 스님(사진 맨 앞쪽)이 사원을 찾은 아시아계 불자들에게 부처님 진신사리를 설명하고 있다. 불자들 사이로 루 마운틴 사원의 주지, 용후아(Yonghua, 사진 맨 뒤쪽) 스님이 서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에서 가장 주목 받은 부처님 치아사리. 루 마운틴 사원 측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60대 아시아계 여성불자'가 기증했다.

치아·두골사리 등 지역 불자 기증
로스앤젤레스 불교 구심점

"오색 보석으로 장식된 둥근 진열대 위에 봉안된 부처님 치아사리는 7.6㎝"라며 부처님 치아사리를 비롯해 법당 곳곳에 크리스탈 용기에 봉안된 부처님 사리를 안내하던 씨아찌에 스님은 "사리는 부처님 열반 이후부터 조금씩 자라는 게 특징"이라며 '동양 특유의 사리신앙'을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씨아찌에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는 법신 그 자체"라고 강조하고, "부처님의 몸과 같은 진신사리를 친견하며 신심을 키운 불자들은 앞으로 캘리포니아 불교공동체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에 한 몫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첫 날에는 치아사리와 두골사리 기증자들도 동참해, 불자들과 지역 언론의 시선을 잡았다.

두골사리를 기증한 티란타 구나세카라(Thilantha Gunasekara · 52 · 스리랑카) 씨는 "법회장을 가득 매운 불자 대부분, 미국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부처님의 사리를 집안의 가보(家寶)로 있기 보다는 많은 불자들이 찾아오는 사원에 봉안하는 게 더 가치있다고 생각해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8년 전 스리랑카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두골사리'를 전해 받았다.

부처님 진신사리 55과를 기증한 탐 후리(Tam Huyhn · 61 · 베트남) 씨는 "사리의 영롱한 빛에 매료되어 고향(베트남)과 인근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구했다"며 "'내게 있을 때는 소장품에 불과하지만, 사원에 봉안되면 법신이 된다' 용후아 스님의 설득이 있어 결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역업에 종사한 그는 10여 년 째 사리를 모아왔다.

"친견법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처님 치아사리의 기증자는 익명을 요구해 사원 측에서 '60대 여성불자'로만 밝히고 있다"고 전한 Sgtribune(sgvtribune.com) 지는 "'미국의 작은 아시아'라고 불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로즈미드는 1990년대에 중국 · 베트남계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현재 아시아계가 로즈미드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첫 진신사리 친견법회가 지역 불교계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루 마운틴 사원 측에 따르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는 오는 5월까지 계속되며, 이후 탑을 조성해 기증된 치아사리와 두골사리 등을 봉안할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에 저자세 보이는 애플(Apple)社

아이튠스 중국, 티베트 독립관련 포함 전자책 삭제

애플 아이튠스 중국 스토어가 일부 iOS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형태의 전자책을 삭제했다.

애플 아이튠스 중국 스토어는 "중국 정부가 금서로 지정한 책들이 대상에 올라 지웠다"고 주장하지만, 외신은 중국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티베트의 정치적 투쟁과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씨넷(cnet.com)은 4월 4일(현지시각) "중국인 북스토어 앱 개발자 하오 페이키앙이 4월 3일 자신의 앱을 애플이 삭제한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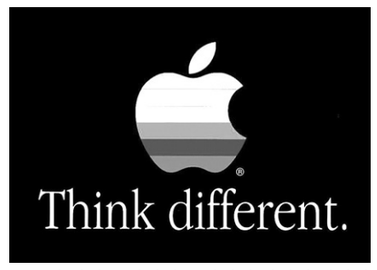
보도에 따르면 하오 페이키앙은 "이 앱은 더 이상 중국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버전의 아이튠스 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오 페이키앙은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애플의 콘텐츠 검수 정책은 적어도 2년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두 달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갑자기 삭제됐다"고 말했다.

'징디엔슈청'이라고 알려진 이 앱은 10종의 고전을 한데 담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앱은 17세 이상 이용가로 다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겉으로 보기엔 법적 금서로 지정될 만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앱 속에 담긴 10가지 고전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금서 작가로 지정한 왕 리시옹의 책이 담겨 있다. 왕 리시옹은 중국을 상대로 티베트 독립을 위해 그간 펼쳐온 노력 등을 주로 저술하며 민주주의 정치 이론가로 알려졌다.

외신은 왕 리시옹의 책 때문에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여 삭제한 것으로 분석하며 "이 앱이 아이튠스에서 사라진 시점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사과 메시지를 전한 직후"라고 전했다.



중국이 가장 금기시하는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를 사용한 애플의 1990년대 광고 포스터.

팀 쿡 CEO는 4월 2일 애플 중국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최근 논란이 빚어진 아이폰 보증정책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는 애플에 대해 외신은 "현재 애플의 상황이 모순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정부 금서지정 책 삭제
애플, 과거 달라이라마 메시지 광고
외신 "애플 상황 모순적" 비난

애플은 지난 1990년대 한때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가 담긴 포스터를 광고 캠페인으로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와 관련해 중국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인물 중 하나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짧은 설법과 칵테일 … 포교방법 고심하는 일본불교

일본의 한 젊은 스님의 '실험적인 포교 방법'이 일본 불교계는 물론 해외 언론의 이목을 잡고 있다. 영국 더가디언(Theguardian)에 따르면, 요시노부 후지오카(Yoshinobu Fujioka · 사진) 스님이 도쿄 시내에서 보즈 바(Vowz Bar)를 직영하며,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짧은 설법'을 하고, 자신이 직접 제조한 칵테일 '영혼의 정화(soul-cleansing)', '완벽한 축복(perfect bliss)', '무간지옥(infinite hell)' 등을 권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바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인 더가디언은 "매년 청장년층 불자 감소를 걱정하는 일본 불교계가 후지오카 스님의 포교 방법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산사태…실종 광부 83명 중 54명 시신 발견

중국 정부 '자연재해'로 규정

중국 티베트(중국명 시짱) 자치구에 3월 29일 산사태로 광산 노동자가 8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4월 4일 추도식이 열렸다. 중국 당국은 사고 현장 부근에 피해자 위령비도 세우기로 했다.

중국신문사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자 추도식이 티베트 라싸시 자마광산 사고 현장 부근에서 열렸다"며 "중국 당국은 광산노동자 8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지 7일째인 4월 3일까지 66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피해자 명단을 확정발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 방재기관과 라싸시 등 당국은 전날 오후까지 4천여 명의 인원과 200여 대의 각종 장비를 동원해 현장 수색작업을 벌였다.

산사태로 흘러내린 흙더미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산사태 재발 조짐이 나타나면서 두 차례 수색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산사태나 지진 등으로 인한 매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의 한계를 고려한 인명 구조 가능 시점으로 알려진 72시간도 이미 지났다. 이에 따라 2명의 여성을 포함한 광산 노동자 83명의 매몰자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지대 인명구조 경험이 많은 리수지 시짱군구 병원장은 "이번 산사태로 발생한 흙더미 속에는 틈새가 거의 없다"며 "매몰자들이 산소 부족 등으로 사고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 요원들이 산사태가 발생한 티베트의 한 광산에서 생존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번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고의 성격을 '자연재해'로 규정했다. 중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재(人災)'라는 주장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공기업 관리부처인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중앙기업들이 최고 경영자의 책임 아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나은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